

# “2018 시즌은 기회... 중요한 역할 맡겠다”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좌완투수 정용운·임기준

9년만의 승리투수 정용운  
불펜의 한 축 맡았던 임기준  
부진·부상 아쉬움 뒤로하고  
경험 살려 새 시즌 준비 한창

2017시즌 ‘절반의 성공’을 거둔 KIA 타이거즈의 좌완 정용운과 임기준이 ‘완벽한 2018’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는 두 명의 좌완이 있다. 올 시즌 임시 선발로 등장해 ‘난세의 영웅’이 되어준 정용운(27)과 후반기 불펜에 힘을 더한 임기준(26).

두 사람에게 올 한해는 잊을 수 없는 시즌이자 진한 아쉬움도 교차하는 시즌이다.

정용운에게는 데뷔 9년 만에 승리투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2017시즌이었다. 6월 4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임시 선발’로 첫 선발 등판에 나선 정용운은 승리까지 기록하면서 활짝 웃었다.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승리였지만, 스윙패의 팀을 구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귀한 승리가 됐다. 다음 넥센전 승리도 정용운에게는 특별했던 기억이다.

그러나 마무리가 아쉬웠던 올 시즌이었다. 위기의 순간 좋은 활약을 해줬던 정용운은 막바지 부진으로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정용운은 “올 시즌 승리투수도 되고 좋은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끝까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 2009년에는 멋모르고 열혈결에 한국시리즈에 나가서 우승 반지를 가졌다. 올해는 야구도 더 알고 생각도 달라진 만큼 오히려 2009년 말고 올해 한국시리즈에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속이 상하기는 했지만 한국시리즈를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더라(웃음)”며 자신의 한 해를 평가했다.

‘경험’이라는 귀중한 자산을 얻으면서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마무리캠프의 마음가짐도 남다르다.

정용운은 “캠프에 와서 몸무게를 3kg 줄였다. 몸 관리 잘하고 있다. 올 시즌 1군에서 던지면서 배운 것도 많고, 뭘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됐다. 올해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시즌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용운의 1년 후배인 임기준은 반대로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의 좌완 정용운(왼쪽)과 임기준이 23일 킨구장에서 캐치볼을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출발이 좋지 못했다.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던 임기준은 6월 25일 NC전을 통해 시즌 첫 1군 등판을 소화했다. 출발은 늦었지만 한층 안정된 피칭으로 불펜에서 좋은 역할을 했고,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합류해 우승의 무대를 밟았다.

임기준은 “대만 캠프에서부터 투구폼을 바꾸는 준비를 했다. 간결하고 강하게 던지려고 변화를 주고 연습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변화의 2017시즌을

말했다.

한층 발전한 모습으로 KIA 불펜에 힘이 되어주기를 했지만 ‘부상’이라는 복병을 만났던 것은 아쉽다.

임기준은 “부상 없이 시즌을 보내는 게 목표였는데 중요한 시기에 부상을 당했다. 올 시즌을 돌아보면 그게 가장 아쉽다”며 “그래도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들어서 야구선수로서 의미 있는 시간도 보냈다. 물론 한국시리즈 경기에 나가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언젠가는 큰 무대에서 던

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고 언급했다.

지난 2년 좌완 베테랑으로 역할을 해줬던 고효준이 지난 22일 2차 드레프트를 통해 롯데로 이적하게 되면서 올 시즌 가능성을 보여준 정용운과 임기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두 사람에게서는 기회의 2018시즌이기도 하다.

정용운과 임기준이 올 시즌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2018시즌 특화된 좌완 축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주목된다.

/오키나와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 타이거즈 소식

###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

내달 2일 광주서...양현종 등 팬사인회·식사 경매도

KIA 타이거즈가 불의의 사고로 병상에 있는 차영화 코치를 돕기 위한 일일호프와 사인회를 연다.

KIA구단과 선수단 상조회는 오는 12월 2일 오후 6시30분부터 12시(자정)까지 광주 동구 황금동 파레스관광호텔 1층 ‘나인로드피제리아 광주점’에서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 호프’를 연다. 단, 미성년자는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으며 주류 구입을 할 수 없다.

이번 일일호프에서 선수단은 유니폼을 입고 서빙을 하며 포토 타임과 선수단 애장품 경매 행사, 사인회를 통한 모금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선수단은 또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사인회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다.

사인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

안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양현종, 이명기, 안지홍, 김민식, 홍건희, 임기영 등이 참가한다.

이와 함께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팬미팅 식사 시간도 진행된다. ‘저녁 식사 경매 이벤트’에 참가 신청한 팬과 선수가 식사하는 자리로, 식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차영화 코치 돕기 모금으로 기부된다.

경매는 홈페이지 팝업창(<http://www.tigers.c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상조회장인 김주찬은 “차영화 코치님의 쾌유를 바라며 올해도 선수들이 모여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팬이 오셔서 코치님이 쾌차하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어린이 야구교실...내달 2일 챔스필드서

KIA 타이거즈가 어린이 야구교실을 개최한다.

이번 어린이 야구교실은 오는 12월 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실내연습장과 그라운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캐치볼과 투구, 타격, 수비 훈련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홍우태(투수), 홍세완(타격), 김민우(수비) 코치가 강사로 나서 꼼꼼하게 기본기 교육을 할 예정이다.

2017년 KIA 타이거즈 어린이 회원 중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참가 어린이들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KIA 유니폼 및 모자, 글러브, 유소년 가방이 기념품으로 증정된다. 부대행사로 선수단과 단체 사진 촬영, 티볼 게임도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27일 오전 11시부터 KIA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 ‘멤버십 예매’(어린이 회원 번호 입력 후 예매 가능)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IA 홈페이지와 마케팅팀(070-7686-80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새로운 고’가 LPGA에 온다”

美 골프채널, 고진영 신인왕 1순위 꼽아

미국 골프채널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을 선언한 고진영(22)을 다음 시즌 신인왕 1순위로 꼽았다.

골프채널은 23일(한국시간) “리디아 외에 ‘새로운 고’가 LPGA로 온다”며 고진영의 투어 진출 소식을 보도했다.

골프채널은 그러면서 고진영이 리디아 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2년 전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준우승하면서 처음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고진영은 아직 미국 진출 결심을 굳히기 전인 지난 19일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 당시 골프채널에 “집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라며 “가족 없이 혼자 멀리 떨어진 데서 오는 외로움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말했다.

골프채널은 “고진영은 내년 LPGA 신인왕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라며 김세영, 전인지, 박성현 등 한국 선수들이 3년 연속 신인왕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기대 이상의 화력...애들이 마법 걸린줄 알았어”



박흥식 코치가 본 ‘KIA 타격’

“애들이 무슨 마법에 걸린 줄 알았어”라며 웃음을 터트린 KIA 타이거즈 박흥식 1군 타격코치. 지켜보던 코치도 감탄하게 만든 타이거즈의 2017시즌 화력이었다.

KIA는 정회열 퓨처스 감독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우승 현장을 있었던 박흥식 1군 타격 코치가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왔다. 캠프를 지켜본 ‘안방마님’ 김민식의 타격 훈련을 돕고, 내년 시즌 그리고 더 먼 타이거즈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다.

우승의 여운을 뒤로하고 캠프로 온 박 코치는 “애들 마법에 걸렸나. 정말 잘 친다고 생각했다”며 올 시즌을 돌아봤다. 타격의 상승세는 예상했지만 기대를 훨씬 뛰어넘은 화력이었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박 코치는 “이명기, 김민식 없이 시작했을 때도 올 시즌은 짜임새가 있는 타선이라고 생각했다. 최형우가 오는 것만으로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빠른 외국인 선수도 찾았다. 그런데 이명기

선수들 겁 없애주고 자신감 생긴 것이 공격의 힘

우승 뒤 책임감·타이거즈 근성으로 미래 밝힐 것

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줬고,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잘했다. 옆에서 보는 코치들도 느끼지만 선수들도 스스로 우리 멤버가 좋아졌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생겼다. 겁이 없어진 것이다. 그게 올 시즌 공격의 힘이었다”고 분석했다.

놀라운 한 시즌을 보내며 우승의 기쁨을 누렸지만 그만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커졌다. 그러나 박 코치는 “걱정 안 하라”며 웃는다. 그 이유는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 있다.

박 코치는 “우승을 하고 난 뒤 책임감도 생기고 우리가 이걸 이어 가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 한 해만 반짝하는 팀이 되면 안 된다. 지금 캠프에 와 있는 선수들이 우리 미래를 이어줄 재산이다”며 “기량이 뛰어나다. 예전 타이거즈의 근성과 절실함도 알고 야구에 대한 열정들이 커졌다. 타격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재능있는 선수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우리 (우승) 멤버가 그대로 간다면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야수들 나이가 있으니까 대처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선수들 덕분에 걱정 안 한다. 3~4년 안에 타선의 주축 선수로 활약할 이들이 있다. 세대교체를 위해 일찍 군대를 보낸 선수들도 있고, 상위팀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캠프를 자처한 김민식의 발전 속도도 미래의 부담을 덜어주는 힘이다.

박 코치는 “전체적인 타격 자세와 스윙 매커니즘 등 타격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근력을 키우고, 하체와 손목 쓰는 법에 집중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다. 방법만 알면 급성장할 수 있는 선수”며 “하체 힘이 없으니 몸이 따라 나가고 타구에 힘이 없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김민식에 대해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

### MLB 연간 수입 100억달러 돌파

2년새 5억달러 늘어

‘산업’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최초로 연간 수입 100억 달러(약 10조8600억원)를 돌파했다.

23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MLB는 15년 연속 수입 증가를 기록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입 100억 달러를 넘었다. 2015년 95억 달러에서 2년 사이 5억 달러(5430억원) 이상 늘었다.

포브스는 포스트시즌 확대에 따른 TV, 디지털 미디어의 중계권 수익 증대가 전반적인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

석했다. TV 방송 중계권 수익과 시청률 증가, 용품 판매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MLB는 2012년부터 아메리칸리그, 내셔널리그에서 각각 5개 팀이 출전하는 포스트시즌 제도를 도입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디비전시리즈-리그 챔피언십시리즈-월드시리즈로 이어지는 구조다.

포브스는 롱 프랜드 MLB 커미셔너 취임 후 디지털 미디어, 후원 계약, 전통적인 TV 방송사 등을 하나로 융합하는 ‘월 배이스볼’ 정책으로 MLB가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평했다.

/연합뉴스